

프롤로그

-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공통분모다. 공통분모 그것은 교양 즉 인문학이다.

1. 역사

-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

역사는 시간에서 출발한다

-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됨. 진보적 역사관
-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순환적 역사관

-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 특성 -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 두 가지

- 마르크스는 역사를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나, 이 예언은 빛나간 것처럼 보인다.
-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유연해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변형하며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이 '생산수단'이라면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자본주의 특성'이다.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는 모습으로서 '공급량이 언제나 수요량보다 많다'는 특성이다.

- 원시 공산사회 -

어느 날 생산수단이 탄생하였다

- 원시 공산사회에서 노동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생산수단의 독점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곡식 생산량 차이가 커지면,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생산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진다.

- 고대 노예제사회 -

생산수단은 왕과 노예를 만들었다

- 진정한 생산수단은 영토, 토지, 대농장, 공장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혼자서 소유할 수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다.
-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시킨다.
- ‘신’은 요청된다. 지배자는 신을 부른다. 왜냐하면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일수록, 그의 신앙은 절실하다.
- 역사적, 정치적으로 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었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 고대 노예제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며 막을 내린다. 고대 노예제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하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사회는 구체적으로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로마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제정일치사회들을 말한다.

- 중세 봉건제사회 -

계급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 서구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배경은 헬레니즘(그리스·로마신화)과 헤브라이즘(그리스도교)이다.
- 유대인들에게는 정체가 불분명한 예수보다는 현실적으로 민족을 대변하는 바라바가 독립운동가로서 더 필요해 보였을 것이다.
- 중세 봉건사회가 되면 사회적 계급은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된다. 국왕과 노예 사이에 성직자, 영주, 귀족, 기사, 농노가 생긴다.
-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은 영주 계급이다. 장원을 소유함으로써 큰 권력을 갖게 되었다.
- 영주들간에 전쟁이 빈번해지자, 영주들은 자신의 장원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 국왕은 신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인정받은 존재였다. 그 권한은 성직자가 인정해주었고 그 대가로 국왕은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주었다.
- 중세후기가 되면서 견고했던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원인은 상업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이 등장했다. 이들 상인들은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또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려 노력하였다.
- 두 번째 원인은 공장의 발생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장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권력을 갖게 된 것이다.
-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부르주아’ 라고 한다. 다른 말로 자본가계급, 시민계급, 유산계급이라고도 부른다.
- 구권력(왕권)과 신권력(자본가계급)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 산업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치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권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동시에 구권력의 지배를 정당해 주는 신과같은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권력은 자신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정당화해줄 신을 대신할 이론적 토대가 필요해졌다.
- 현실에서 신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 세계를 설명해 주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세계를 주관하는 역할이다.
- 부르주아가 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정당해주는 신부터 극복해야 했다. 다시 말해, 신의 역할을 대신해줄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부르주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했다. 이성으로 신을 배제하고도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 부르주아는 정치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회가 자신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회계약설’을 지지했다. 이것은 신의 냄새가 남아있는 ‘왕권신수설’을 대체하는 신 없는 사회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 구권력과 신권력은 충돌하게 된다. 대표적 사례가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이다.

– 근대 자본주의 –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다

- 근대 자본주의 시대는 대략 18세기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200년 정도의 기간이다. 중세의 생산수단인 장원은 근대에 와서 공장과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으로 대체되었다.
- 사회계급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으로 나누어졌다.
-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으로 생산물을 얻고, 그 생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를 프롤레타리아에게 임금으로 지급한다.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한다.

–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

공급과잉이 시작되었다

- 공장은 기계와 분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물을 만들어 냈다. 막대한 양의 생산물이 화폐 경제를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 공급과잉이 바로 자본주의 특성이다.
-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광고비용 확대, 사업 효율성 개선등의 부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 방법은 ‘시장 개척’ 과 ‘가격 인하’가 해결방법이다.

– 제국주의 –

그들에게는 식민지가 필요했다

-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가 된 국가들은 자본주의 특성인 공급과잉 문제에 필연적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다. 식민지를 만들어 원료를 공급받고 가공품을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 실제로 산업화 된 유럽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로 뻗어나갔다. 영국은 인도로, 스페인은 남미로,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갔다.
-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을 팔고, 그 댓가로 아편을 받고, 그 아편을 중국에 팔고 그 댓가로 홍차와 막대한 부를 얻었다.
- 산업화된 유럽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세봉건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계속된 내전으로 산업화가 늦어진 독일은 더 이상 차지할 식민지가 없었다.

- 제1차 세계대전 -

공급과잉이 전쟁을 일으켰다

- 제 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황태자의 암살이 아니다. 독일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이유다.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경쟁에서 뒤처진 독일이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민지가 필요하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 제 1차 세계대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전쟁 이외에는 없었다.
- 전쟁은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었다.
- 전쟁은 일부 부르주아 혹은 일부 국가들에 막대한 부를 창출해준다. 자본주의는 전쟁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유혹한다. 사실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유지해주는 핵심 요소는 전쟁과 유행이다. 전쟁이 공급과잉의 문제를 단번에 해소하듯, 유행은 필요를 뛰어넘는 막대한 소비를 창출해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다.

- 세계 경제대공황 -

가격 경쟁은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 공급과잉 → 가격경쟁 → 구조조정 → 대량실업 → 소비위축 → 공급과잉
- 뉴욕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세계경제 전체를 무너뜨린 1929년의 세계 경제대공황이 발생하였다.
- 뉴딜정책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유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 내적 문제점을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으로 조절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을 '수정자본주의'(후기자본주의)라고 부른다.
- 오늘날 한국에서 정부가 개입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개별 노동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기계화된 특정 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 대공황 해결방안으로 미국은 뉴딜정책, 러시아는 공산주의, 독일은 군국화를 시도하였다.
-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유대인의 정치·사회적 지위는 예수 살해라는 전 우주적 범죄를 저지른 민족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은 대부분 중세 기간동안 가장 천대받는 상업과 대부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상업과 대부업은 무역과 금융업이

되었고, 유대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 지금까지도 세계적 금융산업은 유대 자본에 의해 움직인다.

- 히틀러는 베르사이유 조약에 반대하며, 전쟁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고 민중을 선동했다. 그 결과 독일민족사회주의 정당인 '나치'당이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로 집권당이 되었다.
-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인종 청소를 감행한 이유는 명분이었고 실질적인 이유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유대인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충당하려는 데에 있었다.
- 전쟁은 막대한 양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공급과잉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한다.
- 우리는 보통 역사를 영웅사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영웅사관이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재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특정 인물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와 반대되는 관점이 민중사관이다. 민중사관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를 민중으로 본다.

- 제2차 세계대전 -

공급과잉으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다

-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연합국: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호주,...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를 얻으려는 국가와 식민지를 지키려는 국가간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 정의와 자유를 위한 도덕적인 전쟁은 없다. 자국의 시장인 식민지를 지키고 독일,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응한 것이다.

- 냉전시대 -

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대립하는가

- 냉전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부터 소련이 개혁·개방을 외치며 해체된 1991년까지의 기간이다.
-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이질적인 체제로 인하여 대결할 수 밖에 없었다.
- 두 세계는 체제와 군비경쟁으로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 전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 시장 확보가 필요한 자본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축소를 의미한다.
-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제거하고 그들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공유하면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 '국가'는 요청된다. 국가라는 개념은 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특히, '애국에 대한 강요는 지배자들을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애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고 교육된다.
- '신'과 '국가'의 객관적 의미를 초월해서 사회·정치적으로 과장되고 포장된 의미가 나에게 강요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본주의는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한데, 공산주의의 확장은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자본주의에 위협적이었다.

- 공산주의의 이념적 특성이 자본주의를 내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까닭에 자본주의가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국면은 소련의 경기침체와 함께 급격한 전환을 맞이한다. 소련은 다시 러시아로 해체되고, 미국과 화해와 긴장 완화의 시기가 찾아온다. 이를 '대탕트 (detente)'라고 한다.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은 자본주의 독주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 신자유주의의 탄생 -

새롭고 독특한 경제체제의 세계

- 냉전 이전의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였다. 반면 냉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 시장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세계다.
 -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세계가 매우 독특한 세계임을 아는 것, 내가 사는 세계가 인류 전체가 살아왔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독특한 세계에 발 딛고 서 있는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 왜곡된 '세계'에 서 있는 왜곡된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적 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다.